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정규무력건설업적을 길이 빛내이며

영웅적조선인민군은 영원히 백승만을 떨치리

통령의 학장국, 불폐의 군사강국으로 우뚝 솟구쳐오른 사회주의조국강국에 걸친 8월 8일이 있다.

2월 8일, 불러불수록 이날의 역사적의미가 더없이 소중하게 안겨온다.

우리 민족의 운명을 흥대로 구현하여 주신 어버이 수령님을 높이 모시여 2월 8일은 4월 25일과 함께 우리 조국역사와 주체의 군군사에 투기할 정을 아로새긴 날로 한연히 및나게 되었다.

역사의 이날이 없었다면 우리 조국과 인민의 운명이 파산에 빠졌을 것이다. 조국은 또다시 망국의 비운속에, 인민은 참혹한 망국노의 처지에 영영 살피되었을 것이다.

총대가 약하게 궁성의 파수마저 날의 나라 군대에게 말려야 했고 반만년의 술기로는 역사와 물질을 자랑하던 삼천년 강토가 왜들들에게 판도킬당하는 미눈들의 비극을 겪어야 했던 우리 민족이었다.

오랜 세월 나아온다는 설움속에 갖은 천대와 폐시를 숨겨처럼 감수하여야만 했던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 2월 8일은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지켜주고 빛내여주는 전국적인 혁명무력을 가지게 된 날로 소중히 간직되어 있는 것이다. 하기에 뜻깊은 이 아침 선군군단은 새기와 새대를 이으며 무적의 군력으로 주체조선의 혼연과 위용을 온 누리에 펼쳐주시는 백두의 출진위인들께 가장 숭고한 경의와 최대의 영광을 삼아 드린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숙

김정숙은 통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을 내놓으시고 혁명생애의 전기안에 무력들을 강화하는데 큰 힘을 봉으시었으며 제국주의자들과의 피어먼 팔가리싸움과 준엄한 대결전에서 언제나 승리만을 이룩해오시였다.』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의 나날에도 추억의 노를 저어가는 인민의 마음

은 뜨겁다.

우리 나라에서 정규적 혁명무력건설을 당면한 3대업과의 하나로 내세우신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해방후 모든 것이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 정규군대를 창설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쉽게 단행할 수 있는 용단이 아니었다.

정규무력건설강도도 없었고 군사기지으로 준비된 군사간부도 부족하였다. 해방은 되었으나 일제의 가혹한 식민지통치로 말미암아 국고마저 빼앗았고 나라의 경제도내는 빙과 달랐을 없는 한심한 상태였다.

이런 조건에서 유동한 군사간부들을 기위로 군종, 병종, 전문분야를 다룬 천재적인 정규무력을 건설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체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건설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

의 신념과 비장으로 그 모든 난관을 뚫고나가시며 항일의 불길속에서 혁명무력을 직접 전설하시였던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여 짐타운 민인무력을 주제로 전설하기 위해 한 수령님을 이루었다.

자주 학생들과 훈련소들을 찾고 찾으시며 학생들의 학습과 생활을 살피어 이에 심정으로 고집진 보살펴주시며 몸소 강의에도 출연하시면서

군사교육과 전투훈련에 깊은 관심을 들여신 우리 수령님의 눈가에는 뜨거운 빛이 어려웠다.

이번날부터는 물려주신 두자루의 철총을 밀쳤으로 하여 저 멀리 앙도의

수령님 속에서 혁명무력을 전설하시고 항일의 피비디, 블비다만리를 해치시여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업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이다.

해방한 조국에서 로동자, 농민의 우수한 이들들을 조직하고 정규군전선에 투입하고 유통당당한 조선인민군 열병대으로 바라보시는 우리 수령님의 눈가에는 뜨거운 빛이 어려웠다.

항일의 혁명전선을 떠나는 조여

제시였던 신들의 푸실 사이도 없이 해방후 위대한 수령님께서 강선

길에 앞서 정원길을 먼저 걸으시였

불멸의 대장이었다.

혁명군대의 성격과 사명, 자주복

립 국가의 가장 중요한 정표인 정규

군집에서 들어워고나야 할

방향과 방도들이 명확하게 치명됨

으로서 우리 인민군대는 그걸

부족하고 어려웠던

시기에도

우리 군대로서의

성스러운 사명과 본분을 다해나갈 수 있게 되었다.

정규무력건설을 위하여 우리

수령님께서는 바지신 끝없는 혼신의

자족사육을 잊을수 없다.

나라가 해방될지 몇 달 앞되던

주제 3(1945)년 1월 8일 통장

군 지율리(당시)를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군사정치간부양성기

의 자리로 잡아주시고 그 이름도

『평양학원』이라고 지어주셨다.

평양학원과 중앙보안간부학교, 보

안간부훈련소 등 군사정치간부양성기

지를 꾸려주시고 항일의 불길속에

여각 군종, 병종의 모체부대를 꾸미

는데서 주도적역할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건설을 시도하였다.

제3자 대주사, 괴조주위에 물쳤던

어중이떠중이들은 다른 나라만

쳐다보면서 떠나놓고 정규무력

과학기술증시에 자력자강의 지름길이 있다

자강제제일주의기회온 나카의 앞장에서 배달되고 있는 강원도 일군들의 투쟁경험을 놓고

최근 강원도에서는 자체의 힘으로 중요정책부문들을 일으켜서 우고 도처에 자기지방의 자원에 기초한 실리적인 지역생성기지들을 일제히 도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활상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염어나가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원도 1·2월 6일 소년단 앙양소와 천산군민발전소를 비롯하여 미군단위를 현지지도 하신 경에 하는 죄고령도자동지께서는 대단히 만족해하시면서 도의 일군들과 인민들에게 강원도정신의 창조자라는 칭호는 평가를 안겨주시었다.

공급 토대가 미약하여 국가의 도움만 바라보던 강원도가 오늘은 지역자강의 힘으로 창조와 건설의 동음을 높이 유틸리케이션으로 풀어내고 있다. 사회주의 강국건설사를 빛내이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대정신을 탄생시킨 자랑들은 고장으로 되었다.

말로쓰가 아니라 실천으로 중시하자

강원도 일군들은 자체의 경제발전전략이 있다. 당정책적요구에 맞게 바깥전체 생산기지를 비롯한 지역생성기지들을 대체적으로 일제세우는 과정을 통하여 자강력을 키우고 그 성과에 토대하여 도의 경제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몇년간 강원도에서는 근 30개의 공장, 기업소들을 60여개에 달하는 죄고령은 자체생성기지들을 새로 일제세웠다. 지난 시기 같으면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이런 훌륭한 지역생성기지들을 무수에 푸른 창조한 자체생성기지의 선구자, 불굴의 우사로 내세워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밤을 더욱 빛내어갈 봄이라는 일념을 안고 도의 일군들이 과학자, 기술자들을 적극 내세우고 그들의 역할을 강화하여 아온 자랑한 걸실이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증시 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자면 그 직접적당지자를 봄과 학자, 기술자들의 책임성과 역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몇년전까지만 하여도 도의 과학기술부문 사업은 용당한 놀이에서 진행되지 못하고 있었다.

도의 과학기술증시에서 주도적역할을 수행해야 할 과학기술위원회가 자기의 빈번한 거짓조작 없었고 지도일군역량도 미약하였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그려한 실태가 과학자, 기술자들속에서 과학전진의 영예로운 선구자, 기기술로서의 책임감과 자부심, 더 높이 비약하려는 두개열의 뱃고고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 그에 맞는 최고령도자동지의 높은 뜻을 심장에 새길수록 당의 과학기술증시 사상을 충실히 믿지 못한 빠져나온 자백감이 도의 일군들의 기습을 막고 들었다.

도의 일군들은 먼저 도과학기술위원회 지도일군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에 달라붙었다.

도의 경제실태에 밝고 실무수준이 높으며 지도능력이 강한 일군을 도과학기술위원회 책임일군으로 세우고 일명 한데 이어 과학기술발전에 세우며 활동할 수 있는 신임의 일군들과 현장경험기 및 고급기술수준이 높은 수십명의 기술자들을 선발하여 도과학기술위원회에 배치하였다. 결과 높은 지도수준과 개방능력을 갖춘 힘있는 기수집단이 마련되게 되었다.

뒤따라 도과학기술위원회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었다. 여기에서 큰 부분을 이루었기 때문에 과학기술증시에 해결해줄것이었다. 그에 까지 다른 기관에서 걸친 일을 하는 것으로 본래에는 도과학기술위원회를 죄고령도자동지에게 할것을 제기하였다. 많은 일군들이 강조하였다. 그때 책임일군은 이렇게 모를 빙어하고 강조하였다.

경에 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원아들이 행복의 보금자리에서 세상에 부럽없이 월성히 관찰하기 위한 평양초등학원 교직원들의 철기보임이 7일에 진행되었다.

관제부문, 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평양초등학원 초급당위원장 윤정희의 보고에 이어 원장 윤경남, 부원장 윤정희, 리경선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원아들이 믿고 의지할것은 우리 당밖에 없는 것인가. 정양초등학원의 일군들과 교직원들이 원아들이 실을 풀고 땅에 놓고 땅에 놓고 자랑할만한 아이들의 몇몇이 궁전, 면 후날에도 손색 없는 기념비적 창조물로 일제선 평양초등학원을 밟은 미래를 위해 불철주야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고 우리와 자강력을 급격히 증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밟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자력자강의 위력은 과학기술의 위력이다.

강원도 일군들이 모전 고난과 시련을

박차고 새로운 세대정신의 창조자로 우뚝

솟아온 미경은 바로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낸 것이다.

강원도 일군들의 혁신적인 일군세와 사업기

풍은 청진과 함께 일군을 단호히 차갈기며 승리에 나아가야 할 오늘 우리 시대 일군들에게 창조와 비약의

본연열쇠에 대한 귀환한 경험을 주고 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터를 풀어와 함께 밝혀졌다.

『제국주의자들의 경제기술적봉쇄를 저지시키며 모든 부문을 빨리 발전시키자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풀어줘야나가야 합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同志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는 위대한 장군님을
천세만세 영원히 높이 모시며
수령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순결한 행실과
도덕의식을 가지고 진행하여
야 합니다.』

평명성질경축 얼음조각축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가
2월 6일 삼지연군에서 성황리에
개막되었다.

백두산의 아들로 판생하시여
조국의 무장민성과 인민의 행복
을 위한 길에 행성을 꽝그리
마치시며 우리 조국생사에
영원히 및 날 불멸의 역적을
이룩하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광명성 절경 축얼음조각축전

《영원히 한길을 가리라》 성황리에 개막

끌없는 그려움이 온 축전장에
차넘치고 있다.

뜻깊은 2월의 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장군님의 고향군에서
열린 얼음조각축전은 전국의
탑사자들과 이 고장 인민들,
216사단 물격대원들이 초만
원을 이루고 있다.

이번까지 열두번째의 네를을
아로새기는 평명성질경축 얼음
조각축전에는 216사단 618진
체등에 대하여 거듭 높이 평가

에 1200여점의 얼음조각들
이 전시되었다.

이번 얼음조각장작에 든 얼음
은 860t, 눈은 1960t,
물은 1000t이나 된다.

216사단 618진설련단
인민보안성당에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한생 75돐이 되는
올해의 축전을 계획하는 규모에
서 성대히 마련한 목표를 세우고
수십일간의 얼음조각작품을
조각작전 두루 밀었다.

이 과정에 현대에서는 지휘관

으로부터 물격대원에 이르기까
지 모두가 고심어린 탐구와 기
발한 창작·창조적지혜와 힘을
합쳐 얼음조각의 원천색과 비
롯하여 새로운 창작기법을 내놓았다.

지금으로부터 8년전인 주체
98(2009)년 3월 얼음조
각 축전장을 찾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물격대원들의
기심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
는 절실했던 소망을 해아리시고
이 속진을 살피어온데서 남녀적
으로 전행할 때 대한 귀중한

원재료로 물격대원들이 모인
경우에 대한 확장 중심에 둘러
가면서 물격대원들의

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삼지연군에서 수천리 떨어진 대
동강파수종합농장에서 일하고
있던 물격대원들이 광명성 절
경축 얼음조각축전을 떠나 강원
도에서 계속 진행하고자 하
는 절실했던 소망을 해아리시고
이 속진을 살피어온데서 남녀적
으로 전행할 때 대한 귀중한

원재료로 물격대원들이 모인
경우에 대한 확장 중심에 둘러
가면서 물격대원들의

영원히 한길을 갈 천만군민의
의지를 반영한 작품들로 구성되
여 있다.

축전장을 돌아보면 배두의
혁명정신의 빛나는 구현인 강원도
정신으로 자력자강의 송진로성을
험하게 물려며 전진하는 만리마시
대의 박한 숭경을 느낄 수 있다.

축전장 중심에 둘러싸인
위대한 장군님의 태양상초상화
앞에 향기 그윽한 꽃다발, 꽃송
이를 살피면서 활판자들은
조국의 중화를 한몸에 지니고자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하의 자주
권을 잡았던 위대한 한족민대의
영광과 함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행복에 의해 빛나는 강원도의
강국, 군사강국으로

갖은 험난한 혐오도 없이 강원도를
나타내고자 하는 원수님의 경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원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군상과 혁명의
길과 밤과 밤을 드리고 우리 혁명의
가장 어려운 시기

에 만체 만미대 걸걸을 승리에
이끄시여 우리 인민의 생명인
주체의 사회주의와 나하의 자주
권을 잡았던 위대한 한족민대의
영광과 함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행복에 의해 빛나는 강원도의
강국, 군사강국으로

탈리드는 제국주의 한 합세력의
군사적 압살과 폭력을 선군의
거대한 힘으로 뿐부시며 사회
주의 가치 높이 도도히 전진하는
조선의 담력과 의지를 잘 감하고
있다.

축전장에는 황금산, 보물산을
형상한 신기한 높둥돌, 얼음비너리
얼음을 깎아 만든 『단풍』, 얼음불명, 얼음화

네비에리 등이 놓여 있어 축전함과 화려한
얼음조각들이 많다.

눈보라가 밀렵 속에 짐드는
백두의 밤, 고요한 그 밤의
신비를 펼치려는 듯 아름답고
통한 빛을 가득히 뿐리는 얼음
조각마다...

물격대원들의 뱃유같은 충정
이 신비의 세계, 벌써지는
높은 평명성질경축 얼음조각축
전장을 돌아보면서 활판자들은
격정의 이야기로 꽃을 피우기도
하고 감상록에 뜻깊은 글들을
남기기도 한다.

높은 사상에 숨성의 국치를 이
룬 축전장을 돌아보면서 활판자
들은 선군조선의 천만민미래를
굳건히 담보해 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선군혁명정
신을 확고화하는 기쁨을 누기로
하고 꽃상록에 뜻깊은 글들을
남기기도 한다.

글 특파기자 전철 주
사진 본사기자 리동규



단천지구 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 창립 50돐 기념 보고회 진행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 전달

단천지구 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
창립 50돐 기념 보고회가 7일에 진행
되었다.

보고회에는 관계부문 일군들, 내화
물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종업원들이
참가하였다.

보고회에서는 단천지구 광업총국
내화물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종업원들
에게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이 전달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는 축하문
에서 창립 50돐을 맞는 단천지구 광
업총국 내화물연구소의 과학자들과
종업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내
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축하문은 연구소가 창립 후 지난 50
년간 당과 수령의 현명한 병도와 보살
됨에 대해 충실히 노력해온 일군들을
나타냈다.

